

『네 사중주』에 나타난 시간 개념

김경철(경북대 박사)*

들어가는 말

엘리엇의 시, 특별히 『네 사중주』에는 시간 또는 역사라는 말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래서 『네 사중주』는 엘리엇의 시간개념을 연구하기에 가장 알맞은 시이다. 그러나 엘리엇이 『네 사중주』에서 다루는 시간 개념은 일반적인 의미의 시간이 아니다. 흔히 시간이란 직선적이어서 일단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면 시간은 종점을 향하여 쉴 사이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시간 개념은 흔히 크로노스(chronos, χρονος)의 시간이라고 불린다. 크로노스의 시간이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간을 지칭한다. 그리고 엘리엇이 생각하는 현재의 역사는 “무익과 무정부가 무한히 전개되는 것(the immense panorama of futility and anarchy)”(SP 177)에 다름 아니다. 한 마디로 엘리엇이 생각하는 현대의 역사는 부정적이고 파멸적인 역사로서 엘리엇의 관심은 이런 “(현대의 역사를) 통제하고, 질서를 세우고, 형태와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a way of controlling, of ordering, of giving a shape and a significance)”(SP 177)이다. 어떤 의미에서 『네 사중주』는 엘리엇이 현대의 역사에 질서를 부여하고 형태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다룬 『네 사중주』는 1935년부터 1942년까지 발표된 「번트 노턴」(“Burnt Norton”), 「이스트 코우커」(“East Coker”), 「드라이 샬베이지즈」(“The Dry Salvages”), 「리틀 기딩」(“Little Gidding”)을 하나로 묶어 1943년에 출판한 것이다. 이중 본고에서 다룬 『네 사중주』의 네 개의 시들 가운데 첫 번째 시인 「번트 노턴」은 시간에 대한 명상으로 시작한다. 「번트 노턴」은 엘리엇의 시 중 시간 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시이다.

현재의 시간과 과거의 시간

모두가 미래의 시간 속에 존재할 것이며,

미래의 시간은 과거의 시간에 포함된다.

모든 시간이 영원히 존재한다면

모든 시간은 구속될 수 없을 것이다.

Time present and time past

*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한 장을 수정, 발전시킨 것임을 밝힙니다.

Are both perhaps in time future
And time future contained in time past.
If all time is eternally present
All time is unredeemable. (CPP 171)

시의 모두에서부터 제시되는 시간에 대한 명상은 결국 모든 시간이 한없이 흘러가는 일상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면 시간에 대한 구속은 없다는 것이다. 이 시는 시작부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즉 일반적인 시간이 아닌 특별한 시간, 구속을 가져다 주는 시간을 전제한다. 엘리엇이 강조하는 시간 개념이 구속적 의미를 지닌 시간이라는 사실이 처음부터 명료하게 드러나는 곳은 이곳 「번트 노턴」이다. 엘리자베스 드루(Elizabeth Drew) 역시 『네 사중주』에 나오는 각각의 시를 시간과 관련지어 기억으로서의 시간, 순환적 형태로서의 시간, 유전으로서의 시간, 역사 의미의 계시로서의 시간으로 규정했을 정도로 『네 사중주』는 시간 또는 역사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146). 엘리엇이 자신의 시 『네 사중주』에서 다루는 시간은 구속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구속(救贖)이라는 단어는 원래부터 기독교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엘리엇의 역사관을 해리 앤트림(Harry T. Antrim)은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한다.

We may expect the course of Eliot's poetry, after his conversion, to reflect the larger Christian history with its insistence on the acceptance of the past as something redeemed at every present moment, yet ever pointing to that end which is in fact its beginning. And only in one sense is this a metaphor: at its deepest level it is the actual experience of every Christian life as well as the experience of the Christian community as it moves through its ordained history. (EAM 39)

개종 이후 엘리엇의 시는 현재 순간에 과거는 구속된 것이며 시작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기독교적 시간관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앤트림이 말한 “위임된 역사”란 본고에서 강조하는 구속적 시간 개념과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구속적 시간은 거의 모든 개인 기독교인과 기독교 공동체가 나날의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다. 앤트림은 엘리엇의 시간 개념이 기독교의 구속사적 개념과 동일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엘리엇은 『네 사중주』의 마지막 시 「리틀 기딩」에서 역사 없는 민족에게는 구속도 없다고 단언하면서 앤트림의 견해에 동의한다.

역사 없는 백성은 시간으로부터
구속받지 못한다. 역사는 무시간적 순간들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A people without history
Is not redeemed from time: for history is a pattern
Of timeless moments. (CPP 197)

역사 없는 민족에게 구속이 없는 이유는 역사란 무시간적 순간과 관련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엘리엇에게는 시간 또는 역사와 구속은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엘리엇이 생각하는 역사란 ‘무시간적 순간들의 형태’, 즉 시간과 무시간의 만남이며 이런 시간과 무시간의 만남이 만드는 형태를 통하여 역사는 진행된다는 것이다. 릴리안 페더 (Lilian Feder)는 엘리엇이 말하는 ‘무시간적 순간들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Eliot is concerned with history as a manifestation of temporal existence, a challenge in his conquest of time.... Eliot's interpretation of history is consistently conservative and orthodox.... Eliot is here concerned with literary history, but his conception of the historical sense as a means of overcoming the ordinary limitations of time - "a sense of ... the timeless and of the temporal together" foreshadows his later poetic use of history in defining the timeless moments. (Feder 307-8)

엘리엇에게 있어서 역사란 시간을 극복하는 한 방편으로서 역사는 순간 속에 포착되는 영원, 즉 시간 속에 존재하는 영원한 패턴이다. 엘리엇이 시에서 강조하는 역사란 시간과 무시간이 결합하여 만드는 패턴으로서 이런 역사의식이 그의 후기시의 기초가 된다. 페더의 지적처럼 특별히 『네 사중주』를 포함하여 엘리엇의 후기시의 중요한 한 주제는 역사로서, 시인은 자신의 독특한 역사 개념을 통하여 일반적 역사를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엘리엇이 강조하는 역사란 페더의 지적처럼 보수적이고 정통적 역사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엘리엇이 말하는 역사란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와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엘리엇의 시에 등장하는 장소 역시 엘리엇의 구속적 역사관을 부각하는 데 사용된다. 특별히 엘리엇의 후기 시에 등장하는 역사는 지상의 어떤 구체적 장소와 시간에 발생한 역사이면서 동시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넘어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이 현상 세계에서 탈피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Williamson 206). 이리하여 엘리엇의 시에 등장하는 시간과 장소가 만드는 역사는 구체적 장소와 시간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그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구속적 의미를 지닌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구속이란 전형적인 기독교적 개념으로서 이는 로마서 3:23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救贖)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속은 철저히 예수님과 관련되어있다. 성경은 구속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그분을 통해 인간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구속 곧 죄 용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구속이라는 말은 노예나 죄수의 “몸값을 치르고 구원해 내는 것”을 말한다. 구속이 구원(σωτην)과는 그 의미가 다른 것이 구속이란 특별히 노예나 죄수를 구원하기 위해 ‘몸값(ransom)’을 치르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를 구속하시기 위해 자신이 죽으심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것이다. 구원이라는 말도 그러하지만, 특히 구속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전제된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9장22절)라고 지적한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의 사형은 면제되어 죄인은 더 이상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Christ)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The Anointed)”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의 역사를 기록한 구약 성경에서 직책에 임명할 때에 기름을 부어 임직한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다. 그 세 가지 직분이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었으며, 이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가 다 성취하셨다(*Heidelberg Confession* II. 24). 따라서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하여 구속을 완성하신 것이다.

먼저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분이다.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에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 해마다 드리던 짐승 제사를 대신해서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이다. 히브리서는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히브리서 9:22)라고 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언한다. 그리스도는 짐승 대신 자신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짐승 제사가 불완전하게 한시적으로 제공하던 죄로부터의 용서를 단 한 번에 완성한 것이다.

제사장 다음으로 그리스도는 위대한 선지자이다.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기에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는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리셨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라고 했고, 또 “내가 곧 길이요(the way) 진리요(the truth) 생명이니(the lif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6장 4절)고 하면서 자신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리는 유일한 분임을 선언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God in revelation)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과 선지자 다음으로 왕을 지칭한다. 그리스도는 인간 왕이 하지 못하는 일, 곧 마귀를 멸하는 분이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요한계시록 19: 16) 처음 인간 세상에 죄를 가져온 마귀를 멸하신 것이다. 요한1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라고 하여 인간이 죄를 지으면 바로 마귀의 종이 되고 평생 이 종의 신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선언한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마귀의 손에서 인간을 빼내신 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구속이란 기독교적인 개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대신 죽음으로써 그 피 값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을 말한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타락했을 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오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성육신(成肉身, Incarnation)”이라고 하는데 이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성육신이 중요한 것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 죄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이다. 그래야 인간을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인간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구속이라는 개념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으며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라는 일련의 초자연적인 신적 사건을 포함하는 말이다. 이리하여 구속은 특징적인 기독교적 개념으로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말세에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일련의 신적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적 사건이 『네 사중주』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다. 엘리자베스 드루(Elizabeth Drew) 역시 『네 사중주』의 주제가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지적하였다.

『네 사중주』의 세 번째 시인 「드라이 셸베이지즈」에서 시인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야말로 ‘불가능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정의한다.

반쯤 추측된 암시, 반쯤 이해된 선물이 성육신이다.

여기서 제 존재권의

* Master Plan of Jesus Christ.

불가능의 결합이 실현되고,
여기에서 과거와 미래는
정복되고 화합된다.

The hint half guessed, the gift half understood, is incarnation.
Here the impossible union
Of spheres of existence is actual.
Here the past and future
Are conquered and reconciled. (*CPP* 190)

성육신은 엘리엇이 강조하는 구속역사의 시작이 된다. 구속역사 또는 구속사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일하시는 것으로 그 첫 번째 역사적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이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 위해 낮아지신* 첫 번째 사건으로서 인간이 희미하게 추측만 할 수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성육신이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이기에 초자연적 사건이고 따라서 기적이며 이 성육신을 통하여 불가능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엘리엇이 누누이 강조하는 구속사가 이루어진다. 엘리엇이 자신의 시에서 강조하는 구속 역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육신 사건과 결합함으로써 구속사가 되는 것이다. 엘리엇의 시에 감추어진 구속사는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하여 명백한 구속사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스트 코우커」는 구속사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엘리엇의 역사관은 시간과 무시간이 만나는 것인데 이런 기적적 사건은 구속사의 핵심인 그리스도 사건에서 초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엘리엇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길게 상징적으로 묘사한다.

The wounded surgeon piles the steel
That questions the distempered part;
Beneath the bleeding hands we feel
The sharp confession of the healer's art
Resolving the enigma of the fever chart.

Our only health is the disease

* 신학에서는 이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humiliation of Christ)이라고 한다. 이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일련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sublimation of Christ)이라고 정의한다.

If we obey the dying nurse
Whose constant cure is not to please
But to remind of our, and dam's curse
And that, to be restored, our sickness must grow worse

The whole earth is our hospital
Endowed by the ruined millionaire,
Wherein, if we do well, we shall
Die of the absolute paternal care
That will not leave us, but prevents us everywhere.

The chill ascends from feet to knees,
The fever sings in mental wires,
If to be warmed, then I must freeze
And quake in frigid purgatorial fires
Of which the flame is roses and the smoke is briars.

The dripping blood our only drink,
The bloody flesh our only food:
In spite of which we like to think
That we are sound, substantial flesh and blood-
Again, in spite of that, we call this Friday good. (*CPP* 181-82)

“피흘리시는 손”, “뚝뚝흐르는 피” 그리고 “피범벅이된 몸”은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어가는 그리스도와 조용하고 “파산한 백만장자”가 물려준 “저주”는 아담의 죄와 조용한다. “피흘리는 외과의”는 구약성경이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상처입은 치료자 (wounded healer)”로 묘사하는 것과 일치한다. 구약 시대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상처입으실 것을 예언했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5: 13)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히 낮아져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비밀이고 한편 계시이다. 계시(ἀποκαλύψις, revelation)란 기독교적인 용어로서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가리킨다(Rienecker & Rogers 811).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의 타락을 전제한다. 엘리엇이 역사를 구속적 역사로 파악할 때 거기에는 인간의 원죄가 전제되어 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면 죄의 용서인 구속도 필요 없기 때문이다. 엘리엇은 「리틀 기딩」에서 인간에게 원죄란 불가피한 실상이라고 강조한다,

죄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만사는 잘 될 것이다.

Sin is Belovely, but
All shall be well, and
All manner of thing shall be well. (CPP 195)

죄가 없으면 구속도 필요 없기 때문이다. 원죄란 인간이 태어날 때 조상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으로 엘리엇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즉,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에 본질에서 제한되고 불완전한(He is endowed with Original Sin. . . . essentially limited and imperfect)” 존재라는 사실을 고전주의자 흄(T. E. Hulme)에게서 습득하여 그는 평생 그 사상을 고수했을 뿐만 아니라(28) 더 나아가 그는 신에 의한 창조를 믿었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초자연적인 실재들을 창안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모든 것은 아래부터 발전한 것으로 추적 가능하며 아니면 위로부터 온 것이어야 한다. 이 딜레마를 피할 수는 없다. 당신은 자연주의자이거나 아니면 초자연주의자일 수밖에 없다.

Man is man because he can recognize supernatural realities, not because he can invent them. Either everything in man can be traced as a development from below, or something must come from above. There is no avoiding that dilemma; you must be either a naturalist or a supernaturalist. (SE 485)

여기서 엘리엇은 인간은 모름지기 “아래로부터” 태어난 자이거나 아니면 “위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데 이는 엘리엇이 요한복음에서 인용한 것이다. 요한복음 3장 31절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라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셨고 다른 모든 인간은 아래로부터 기원한 것임을 지적한다. 엘리엇은 이 말을 인용하면서 자신은 초월적 존재자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으며 신에 의한 인간 창조를 믿는 자(김명옥 2000, 38)임을 암시하고 있다.

구속적 역사에 반드시 창조가 전제되는 것처럼 성경은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선포한다. 성경은 창조 사건을 특별히 중요하게 기술하고 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선포한다. 성경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visible)”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invisible)”, 즉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는” 세계가 먼저이고 그것이 곧 실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성경은 독자에게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보다 더 실재라고 선언한다.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유일한 실재라고 주장한다. 사실 성경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성경이 묘사하는 세계가 유일한 세계라고 주장한다. 에리히 오이에르바흐(Erich Auerbach)는 자신의 저서 『미메시스: 서양문학에 나타난 실재의 재현』(*Mimesis: Representation of Reality in Western Literature*)에서 성경은 성경에 묘사된 세계가 하나의 실재(a reality)라고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경이 묘사하는 세계가 유일한 실재(the reality)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하고 있다(130). 이처럼 성경은 성경에 기술된 세계가 유일한 실재라고 선언하고 있다.

엘리엇이 자신의 시는 물론이고 자신이 쓴 평론에서 자신이 강조한 역사 내지는 전통은 기독교적인 구속적 역사요 전통임을 강조한다. 엘리엇이 거듭 강조한 이 전통이 야말로 자신이 생각한 시인의 필수적 자격조건인데 엘리엇은 이 전통이 다름 아닌 기독교 전통이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 신을 찾아서』(*After Strange Gods*)라는 자신의 비평 서에서 엘리엇은 결국 시인이 가져야 할 역사의식이란 다름 아닌 기독교 전통이라고 선언한다.

물론 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올바른 전통이란 또한 기독교 전통이어야만 되고, 통상적 의미의 정통성이란 기독교 정통성을 의미한다고 믿는다. 나는 이 일련의 현재 강의 내용에서 신학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Though of course I believe that a right tradition for us must be also a Christian tradition and that orthodoxy in general implies Christian orthodoxy. I do not

propose to lead the present series of lectures to a theological conclusion. (ASG 22)

엘리엇은 자신의 평론과 철학 그리고 우리가 다룰 시에서 일관되게 전통 내지는 역사 의식이란 기독교적 개념임을 강조하고 심지어 정통성도 궁극적으로 기독교적 정통성 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엘리엇의 역사는 기독교적 정통성과 결합하고 이리하여 엘리 엇의 역사관은 구속적 역사관으로 귀착된다. 이처럼 엘리엇의 시에 나타난 역사개념 은 정통적 기독교 개념이며 달리 표현하면 구속적 역사라고 할 수 있다. 헬렌 가드너 (Helen Gardner) 역시 『네 사중주』 전체 시와 각 4편의 시의 주제는 “알파와 오메 가, 처음과 나중, 우리 믿음의 주인이자 완성자인 그리스도”(184)로 압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비단 『네 사중주』 뿐만 아니라 본 논문에서 밝힐 것처럼 엘리엇 전체 시의 주제이기도 하다. 주얼 브루커(Jewel Brooker)는 엘리엇의 사상과 철학적 순례 를 지적하면서 기독교가 엘리엇의 인생과 문학을 지탱하는 유일한 사상체계라고 지적 한다.

그는 베르그송 사상, 에로스, 미학주의, 인본주의, 이념주의를 시도한 바 있고 그리고 불교를 받아들일지 진지하게 고려한 바 있다. . . . 기독교는 엘리엇의 지적이고 감성적인 욕구 모두를 충족시키는 유일한 체계, 그의 삶과 예술을 통합시키도록 용인해주는 유일한 체계이다. 그 기 독교 체계는 작동하는 유일한 체계이다.

He had tried Bergsonism, Eros, Aestheticism, Humanism, Idealism and had seriously considered Buddhism. . . . Christianity was the only scheme which satisfied both his intellectual and his emotional needs, the only scheme which permitted him to unify his life and art. . . . the Christian scheme was the only one which worked. (913)

엘리엇의 역사관은 영적인 역사요 구속적인 역사인데 엘리엇은 이 역사의 중요성을 20세기 전반부의 가장 위대한 평론인 「전통과 개인의 재능」(“Tradition and the Individual Talent”)에서 거듭 강조한다. 엘리엇은 여기서 시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 요한 요소는 역사의식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실제로 엘리엇은 문학의 핵심이 역사의 식이라는 견해를 피력했으며 더 나아가 그에게 있어서 역사의식은 그의 시와 철학 그 리고 자기 신앙의 근원에 자리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었다.

우선 그것[전통]은 역사의식을 포함한다. . . . 그리고. . . . 그 역사의식은 개인으로 하여 금 자신의 뻗속 깊이 자신의 세대를 인식할 뿐 아니라 호메로스로부터 전 유럽 문학 그리고 그 안에 자기 조국의 문학 전체가 동시적으로 존재하며 동시적 질서를 이룬다는 느낌을 가지 고 글을 쓰도록 강요한다. 시간적 의식일 뿐만 아니라 무시간적 의식, 그리고 무시간적 의식과

시간적 의식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이 역사의식이야말로 작가를 전통적 작가로 만드는 것이다.

It [tradition] involves, in the first place, the historical sense. . . and. . . the historical sense compels a man to write not merely with his own generation in his bones, but with a feeling that the whole of the literature of Europe from Homer and within it the whole of the literature of his own country has a simultaneous existence and composes a simultaneous order. This historical sense, which is a sense of the timeless as well as of the temporal and of the timeless and of the temporal together, is what makes a writer traditional. (*SE* 14)

엘리엇은 역사의식이 중요하고 이 역사의식이 전통을 만든다고 지적한다. 시인이란 모름지기 뻗속 깊이 자기 시대를 깊이 천착하고 그것을 철저히 시에서 다루어야 하되 그와 동시에 자기 등 뒤에는 자기 나라와 전 유럽 문학에 대한 의식을 느끼고 있어야 한다. 이 역사의식이야말로 시인을 시인되게 한다고 강조한다. 에드문트 후설(Edmund Husserl)이 말한 것처럼 인간이란 우연히 어떤 시간(a time)이라는 역사적 상태에 던져진 자가 아니라 다양한 역사적 지점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 뛰어든 자라는 사실이다. 엘리엇이 이 평론에서 지적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완전한 무계를 느끼며 문학을 읽는 독자에게 역사는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무시간적 사건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현재의 정지 상태에 사는 자가 아니라 쉬지 않고 흐르는 흐름 속에 사는 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흐름은 어딘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현재 순간을 현재에서만 조망하면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나 역사를 시작이 있고, 계획이 있으며 종말이 있다는 역사적 관점에서 조망할 때 현재 순간은 영원히 의미를 지니게 된다(Timmerman 177). 이처럼 엘리엇이 자신의 평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현재는 시작과 종말을 가진 역사의 한 부분이며 이런 역사의식이 시인이 가져야 할 조건이라는 것이다.

엘리엇의 역사관은 성경이 말하는 구속적 역사관이다. 엘리엇의 시에 반영된 역사는 성경적 개념으로서 역사를 하나님 역사의 현장으로(Butterfield 117) 파악한 것은 앞에서 고찰하였다. 엘리엇은 “여기, 지금(here, now)”(*CPP* 176)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이 구체적인 역사 현장에서 인간은 구속에 이른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강조한 시인이다. 엘리엇은 현재의 삶을 영위하는 중에 무시간적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Timmermann 175). 이러한 엘리엇의 견해는 그의 평론 「파스칼의 『팡세』」(*“The Pensées of Pascal”*)에 잘 나타나 있다. 엘리엇은 파스칼을 가리켜 파스칼이 신비주의자는 아니며 그의 작품도 신비주의적 저술로 규정할 수 없지만 “신비적 경험”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이 신비주의자가 아닌 많은 사람에게 나타난

다고 주장한다.

파스칼은 신비주의자가 아니고, 그의 저작물도 신비적 저술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신비적 경험이라고 밖에는 불릴 수 없는 현상들이 신비주의자가 아닌 많은 사람에게 나타난다... 심지어 가장 열렬한 신비주의자조차 세상으로 돌아가, 그의 경험의 결과를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자신의 이성을 사용해야 한다.

Pascal was not a mystic, and his works are not to be classified among mystical writings, but what can only be called mystical experience happens to many men who do not become mystics. . . even the most exalted mystic must return to the world, and use his reason to employ the results of his experience in daily life. (EAM 147-48)

엘리엇은 인간이 신비적 경험 즉, 무시간적 순간을 인식하면서도 일상적인 삶으로 완전히 복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신비적 경험을 한 자라도 반드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하고 일상의 삶 가운데 자신이 한 신비체험을 활용할 것을 충고할 정도로 그에게는 신비체험과 일상의 삶이 분리될 수 없었고 분리되지도 않았다. 이처럼 엘리엇은 일반 역사를 영적이고 구속적인 역사와 구분하지 않고 역사를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이해했다. 엘리엇에게 있어서 역사란 역사와 초월적 역사의 만남으로 이해한다.

The new pattern is the form God gives to history. The presence of God in history, of the timeless in time, is the Incarnation. The incarnation recurred at a particular moment in time, and yet is constantly recurring at every moment as that which creates time by creating the design of time. The incarnation was “a moment not out of time, but in time, in which we call history”. (Miller 188)

역사란 시간 속에 존재하는 영원한 패턴이며 엘리엇의 새로운 패턴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부여해준 패턴으로서 이는 성육신에서 절정에 이른다. 엘리엇에게 영원한 신이 역사 속에 부여해 준 성육신의 패턴으로서 시간도 무시간도 아닌 영원이며 삶도 죽음도 아닌 공존이고 육과 영의 합일처럼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상반의 공존이라는 신의 창조 개념이다.

엘리엇이 말한 시간의 구속은 영적인 개념이기에 시간에 대한 명상으로 시작된 시는 곧바로 신현(神顯, theophany)으로 이어진다. 이 시는 메마른 콘크리트 풀장이 빛으로 가득 차고 흘러가는 구름의 그림자로 마감한다.

물 마른 풀장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풀장은 마르고, 콘크리트도 마르고, 가장자리는 갈색
 햇빛이 비치자 풀장은 물로 가득 차,
 연꽃이 가벼이 가벼이 솟아오르며,
 수면은 광섬에 부딪혀 반짝인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의 등 뒤에서 풀장에 비치고 있었다.
 그러자 한 가닥 구름이 지나니, 풀장은 텅 비어 버린다.

To look down into the drained pool.
 Dry the pool, dry concrete, brown edged,
 And the pool was filled with water out of sunlight,
 And the lotos rose, quietly, quietly,
 The surface glittered out of heart of light,
 And they were behind us, reflected in the pool.
 Then a cloud passed, and the pool was empty. (CPP 195)

흘러가는 구름의 그림자는 “변화산(the mountain of Transfiguration)” 사건을 암시한다.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장차 영화로운 모습으로 다시 재림할 것을 예언하고 난 후 열세 후에 변화산에서 갑자기 변형된다. 흘러가는 구름의 그림자는 다른 사람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마태복음 17장 8절)라고 기술한 변화산 사건과 흡사하다(Cook 1987, 87). 『네 사중주』가 시간에 대한 사색으로 시작되며, 이 명상은 곧이어 역사관으로 이어진다. 엘리엇은 이 시에서 시간은 무시간과 연결된 것이라고 천명한 뒤 다시 한 번 더 시간이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자신의 시간관이 특별한 것임을 암시한다.

있을 수 있었던 일과 있는 일은
 한 점을 향하여, 그 점은 항상 현존한다.

What might have been and what has been
 Point to one end, which is always present. (CPP 172)

변화무쌍한 시간은 항상 존재하는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쿡(Cook)은 영원한 현재는 영원한 목적으로 대치되고 이 영원한 목적은 그 성격상 현재의 목적이 되기도 하는데 이 사실이 『네 사중주』의 나머지 부분을 통제하고 있다고 하면서 (Cook 1987, 87) 이 시간관이 구속적 역사관이라는 말에 동의한다.

발자국 소리는 기억 속에서 메아리치며
 우리가 들어가 본 적이 통로로 내려가
 한 번도 열어 본 적이 없는 문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장미원 속으로 사라진다. . . .
 우리 따라가 볼까?
 빨리, 그걸 찾아요, 찾아요, 새가 말했다,
 모퉁이를 돌아서. 첫째 문을 빠져나가,
 우리들의 최초 세계로 들어가.

Footfalls echo in the memory
 Down the passage which we did not take
 Towards the door we never opened
 Into the rose garden. . . .
 Shall we follow?
 Quick, said the bird, find them, find them,
 Round the corner. Through the first gate.
 Into our first world. (CPP 171)

『네 사중주』는 처음부터 무수한 성경적 암시로 충만하다. 시의 서두에서부터 사복음서, 그중 특히 요한복음의 중요한 핵심개념인 생명, 빛, 바람, 최초 세계 등이 앞다투어 등장한다(Cook 1987, 85-7). 엘리엇은 여기서 최초 세계인 에덴동산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낙원에서 추방된 자라는 사실을 암시하고(Howard 30), 우리에게 구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처럼 『네 사중주』를 여는 「번트 노턴」은 시간의 주제를 서두에서 제시하면서 엘리엇의 시간관 또는 역사관이 영적이며 구속적 역사관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여행을 막 시작하는 우리에게는 과거와 미래 시간이 우리를 엮어매고 육체 또한 연약함에 싸여 있어 과감하게 결단하지는 못한다. 물론 엘리엇의 시가 강조하는 구속적 역사 앞에서 인간이 담대하게 결단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매시슨(F. O. Matthiessen)은 이 시에 묘사된 구속적 시간관을 “역설적인 기독교적 개념(paradoxical Christian view)”의 시간이라고 부르고 있다(57). 매시슨이 명명한 역설적인 기독교적 개념의 시간이란 기독교가 제시하는 시간관이 일반인들이 보기에 역설적이라는 말인데, 결국 이 시가 제시하는 역사관이 매우 역설적인 것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 즉, 시간을 통해서 시간이 구속된다는 점 때문이다. 이를 머레이(Murray)는 “상반의 공존”이라고 부른다.

There is the world of senses, immediately seen, and there is the spirit's response in its own realm of meaning. In their relation lies a third which is the realm of Eliot's kind of metaphysical poetry... This generates its energy from the co-existence of opposites. (244)

「리틀 기딩」에서도 같은 패턴이 유지되어 결국 영국은 이 세상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형태가 복원된 새로운 세상을 암시한다. 더불어 이처럼 복원된 새로운 세상에는 이전 세상의 모든 부정과 거부가 제거되었음을 시사한다. 구속사는 일련의 그리스도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강림사건으로 완성된다. 드루는 이 시를 “역사의 의미 계시로서의 시간”이라고 지적하는데(Drew 146)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님의 강림사건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된다. 이제 구속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결단이 요청된다. 이제 작열하는 불이 대기를 부순다. “불로써 불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어느 불썰을 선택하느냐만 남았다. 결국, 오순절에 “불같이” 임한 성령의 불에 의해서 이 절망의 불길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느 불썰을 택하는가에 달려 있다.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작열하는
공포의 불길로 대기를 부순다.
그 불길에서 혀가 선포한다
죄의 과오로부터의 해방을.
오직 희망이나, 그렇지 않으면 절망이나는
불로써 불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이 불 썰을 택하느냐, 저 불 썰을 택하느냐에 있다.

The dove descending breaks the air
With flame of incandescent terror
Of which the tongues declare
The one discharge from sin and error.
The only hope, or else despair
Lies in the choice of pyre or pyre—
To be redeemed from fire by fire. (CPP 196)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인간세계에 강림하심으로써 구속은 완성된다. 여기서 엘리엇은 독일의 폭격기를 비둘기라고 지칭하여 죽음을 가장 온유한 성령으로 대치하는 탁월한 수사적 기교를 보여주고 있다. 비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머리에 임하신 새로서 성령을 상징한다(마태복음 3: 16). 비둘기의 온유한 성품이 성령을 가장 잘 나타낸다. 이제 이미지는 이중성을 띠면서 죽음의 불길과 성령의 불길로 제시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런던 상공을 날며 작열하는 불길을 토해내던 독일 공군의 폭격기는 이 불길에서 구원받기 위해 인간의 선택을 기다리는 성령의 불길과 중첩된다. 여기에서 엘리엇이 잘 구사하는 역설이 또다시 등장한다. 독일 폭격기가 연일 런던 상공에 투하하는 죽음의 불길을 오순절 날 임한 “생명의 성령님”의 불길과 중첩함으로써 죽음의 현장을 생명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엘리엇의 역설적 시학은 이처럼 죽음 한가운데서 생명을 찾아내고 있다. 쿡은 여기서 “보응의 모티프가 구속의 신학 안에서 변형”하도록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경 이미지를 찾아내고 있다(Cook 91). 런던 상공에서 폭격으로 투하되는 죽음의 불은 오순절 임하신 성령님의 불과 중첩되고, 이 죽음과 생명의 순간에 크로노스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형된다.

죽음의 불 한가운데서 생명의 불을 등장시키는 이 시는 강렬하게 독자의 선택을 재촉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런던 시민들이 내려야 할 절박한 결단과 성경이 요구하는 결단의 절박성은 대동소이하다. 엘리엇이 요청하는 독자 반응은 성경의 경우처럼 지극히 배타적이다. 오이에르바흐가 정확하게 지적하듯이 성경의 진리 주장은 호메로스의 글보다 훨씬 더 “절박할” 뿐 아니라 거의 “폭군적”이어서 모든 여타 주장을 거부한다. 성경 이야기의 세계는 “역사적으로 참된 실재(historically true reality)”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경 자체가 “유일한 실재 세계(the only real world)”라고 주장한다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Auerbach 14-15).

시인이 서 있는 장소는 이제는 과거의 역사적인(historical) 시공간이 아니라 구속사의 시공간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구속사의 모형은 변화산(Mount of Transfiguration) 사건에서 가시화된다. 존 가타(John Gatta)가 『네 사중주』의 각각의 시는 변화산에서 그 절정에 이룬다고 했듯이 이 변화산은 구속사의 모형이다. 기독교가 말하는 신의 영원은 무시간의 영원으로서 역사가 전형적으로 복원된 이곳에서는 과거와 미래가 없는 영원한 현재만 존재한다.** 『네 사중주』의 중요한 모티프인 시간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 시간과 만남으로써 우리가 있는 이 장소는 곧 영국이면서 영국이 아니고, 영국이 아니면서 다시 보면 영국으로 형상화한다. 이런 무시간과 시간의 교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며칠 후 자신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변화산 사건에서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 로마서 8장 2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여 성령과 생명을 연결 짓고 있다.

** 루터(Martin Luther)가 말한 대로 영원이란 두 가지 즉, ‘timeless eternity’와 ‘endless eternity’가 있는바 시간과 관련한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은 전자 곧, ‘timeless eternity’이다.

시의 서두에서 암시된 변화산 사건이야말로 구속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변화산은 원래 감람산(Mount of Olives)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산에서 갑자기 변형되어 옷이 “해같이 빛나고” 얼굴에서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마태복음 17: 1-9). 가타는 『네 사중주』 전체를 통괄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이미지로서 변화산 사건을 꼽으면서 이 변화산 사건에서 유한한 인간이 성육신을 이해하며 동시에 이곳은 객관적 교리가 개인적 영성으로 변형되는 순간이라고 지적한다(Gatta 156-57).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제자 중에 그리스도 자신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선언한 몇세 후, 변화산에서 영광 중에 그리스도가 변형된 채 임하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난다. 이 변화산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의 모습(요한계시록 20장 1-6절)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한 변화산 위에서의 시간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장소이면서 동시에 이 장소는 재림 때의 시간과 장소를 예표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택하신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최후 승리의 순간이요, 이 순간에 시간은 완전히 변형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극명하게 표현된다.

나가는 말

엘리엇에게 있어서 역사란 중요한 개념이다. 그는 현대의 역사가 무질서하고 혼돈한 상태에 있다고 진단하고 이런 무질서와 혼돈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데 자신의 생애를 경주한 시인이요 학자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서 역사란 발생한 사건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역사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 역시 중요했다. 물론 역사적 사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사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역사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그 역사의 영적인 의미를 바로 되새기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를 누누이 강조한 엘리엇의 역사관은 일반적인 수평적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구속적 역사이다. 엘리엇에게 있어서 인간사에 벌어지는 역사란 수평적인 의미보다는 도리어 이를 초월하는 영적인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서 엘리엇이 그려내는 역사는 구속적 역사이다. 곧 구속사이다. 엘리엇은 자신의 시, 특히 네 사중주에서 역사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과 최후 완성을 그리는 데 네 사중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엘리엇의 시는 결국 성경이 묘사하는 구속사에 다름 아니다.

참고도서

박정환 (1996). “T. S. Eliot의 문학과 종교: 구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숭실대

학교.

생명의 말씀사 (1999). 『한글 개역성경』. 서울.

Antrium, Harry (1994). *T. S. Eliot's Concept of Language*. New York: UMI.

Auerbach, Erich (1953). *Mimesis: The Representation of Reality in Western Literature*. Trans. Willard Trusk. Princeton: Princeton UP.

Brooker, Jewel Spears (1994). *Mastery and Escape: T. S. Eliot and the Dialectic of Modernism*. Amherst: U of Massachusetts P.

Butterfield, Herbert (1984). 『기독교와 역사』. 주재용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Cook, Cornelia. "Fire and Spirit: Scripture's Shaping Presence in T. S. Eliot's *Four Quartets*." *Literature and Theology*. Oxford: Oxford UP, 15.1 (1987): 85-101.

Drew, Elizabeth. (1949) *T. S. Eliot: The Design of His Poet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Eliot, T. S. (1934) *After Strange Gods*. London: Faber and Faber, 1934. (ASG로 표기)

----- (1962) *The Complete Poems and Plays. 1909-1950*. New York: Harcourt, Brace & Company. (CPP로 표기)

----- (1932) *Essays Ancient and Modern*.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EAM으로 표기)

----- (1964) *The Pensées' of Pascal*. London: Faber and Faber.

----- (1976) *Selected Essays*. London: Faber and Faber. (SE로 표기)

Feder, Lilian (1971). *Ancient Myth in Modern Poetry*. New Jersey: Princeton UP.

Gatta, John. (1988) "Four Quartets as Capstone Text in a Literature and Mysticism Course." *Approaches to Teaching Eliot's Poetry and Plays*. Ed. Jewel Spears Brooker. New York: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Matthissen, F. O. (1958) *The Achievement of T. S. Eliot*. Oxford UP.

Murray, Paul (1991). *Eliot and Mysticism*. London: Macmillian, 1991.